

1위 탈환 나선 호랑이 “사자 나와”



주간 프로야구 전망대
KIA, 두산과 홈경기 뒤 대구로
한기주·안치홍 투타 맹활약 기대

이번 주 프로야구 팬들의 관심은 운통 호랑이와 사자가 만나는 ‘외나무 다리’에 쏠려있다. ‘1일 천하’를 누렸던 KIA 타이거즈가 주말 삼성 라이온즈와 선두 쟁탈전을 벌이기 때문이다. KIA는 지난주 넥센전 싸움이에 이어 LG를 상대로 워닝시리즈를 가져오면서 삼성의 간담을 서늘게 했다. 윤석민이 10승 고지를 밟은 8일에는 삼성을 끌어내리고 잠시 선두에 서기도 했지만 승률 싸움에서 밀리며 2위로 이번 주 일정을 시작한다. 주중 두산과의 홈경기를 치른 KIA는 주말 대구로 건너가 삼성과의 빅

매치를 벌인다. 앞문이 튼튼한 KIA와 뒷문이 든든한 삼성은 올 시즌 4승4패를 주고받으면서 만만치 않은 승부를 벌여왔다. KIA는 올스타브레이크를 앞두고 선발진의 불펜 투입을 통한 ‘마운드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전반기 남은 9경기에서 최대한 승을 쌓아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계획이다. 총공세를 앞두고 마운드에도 변화가 있다. 가능성과 문제점을 동시에 보여준 김진우가 11일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6년 만에 마운드에 돌아온 김진우는 1군에서 전력 점검을 받았지만 공백

■ 2011 프로야구 주간순위 (7월 11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삼성	74	43	29	2	0.597	-	1패
2 KIA	79	47	32	0	0.595	-0.5	1승
3 SK	71	40	31	0	0.563	2.5	2승
4 LG	75	39	36	0	0.520	5.5	1패
5 두산	71	32	37	2	0.464	9.5	1승
6 롯데	74	32	39	3	0.451	10.5	2패
7 한화	78	34	43	1	0.442	11.5	1승
8 넥센	72	26	46	0	0.361	17.0	4패

의 틈이 컸다. 대신 KIA는 한기주를 새로운 카드로 선택, 정상 탈환의 선봉에 세우겠다는 포석이다. 퓨처스리그에서 5경기 투 소화한 한기주는 12일 1군에 합류해 엔트리 등록을 기다리게 된다. 지난 2009년 11월 20일 팔꿈치 수술을 받은 이후 20개월 만의 복귀다. 선취점 싸움이 승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KIA는 막내 안치홍과 최고참 이종범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허리

부상으로 잠시 쉬었던 안치홍은 지난 주 0.421의 타율로 알자배기 5타점과 5득점을 만들었다. 호수비 퍼레이드로 투수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며 공·수에서 만점 활약을 했다. 이종범은 올 시즌 후배들에게 주전 자리를 내주고 대수비·대주자로 콧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지난주 전금 같은 안타 두 개로 자신의 진가를 발휘했다. 지난주 6타수 2안타에 그쳤지만 이 두 개의 안타가 팀의 승부를 결정짓는 귀중한 역할을 했다. 1위 탈환을 준비하는 KIA는 통산 두 번째 팀 3100홀런에도 도전한다. 10일 김상현이 개인 통산 100홀런을 쓰아올리면서 3100홀런에 단 하나만 남았다. 마지막 한방의 주인공을 놓고 이범호·김상현·나지완·김주형 ‘거포 군단’과 주말 LG와의 경기에서 매서운 방망이를 보여준 안치홍·김민섭이 북병으로 경정을 벌일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아시아펜싱 여 플리레 금 11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11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플리레 단체 결승전에서 한국의 남현희(오른쪽)가 일본 나시오카에게 찌르기 공격을 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을 25점차로 누르고 정상에 섰다. 남자 사브르 단체도 중국을 제치고 우승했다. /연합뉴스

임동현·기보배 혼성부 금 썼다



기보배(광주시청)가 10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토리노 카스텔로 광장에서 열린 2011년 세계선수권대회 혼성부 결승에서 시위를 당기고 있다. /연합뉴스

양궁 세계선수권대회
남자부 김우진 2관왕

한국 양궁 대표팀의 막내 김우진(19·청주시청)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김우진은 10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토리노 카스텔로 광장에서 열린 2011년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동료 오진혁(농수산출소빙)을 6-2(29-29 27-27 28-27 29-28)로 꺾었다. 김우진은 임동현(청주시청), 오진혁과 함께 출전한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도 프랑스를 226-217로 완파해 금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한국은 이로써 2001년 베이징 세계선수권대회부터 6차례 연속으로 단체전 금메달을 따냈다. 임동현과 기보배(광주시청)는 혼성부 결승전에서 멕시코를 151-144로 따돌렸다. 한국은 2엔드까지 62-63으로 뒤졌으나 3엔드에서 멕시코가 10점, 9점 두 발, 7점을 쓸 때 10점 세 발과 9점을 명중해 111-108로 역전한 뒤 마지막 4엔드에서 10점 네 발을 쏘아 승리를 굳혔다. 여자팀 주장 기보배는 한국이 여자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26년 만에 ‘노골드’에 그쳐 가라앉은 분위기에 미소를 조금이나마 되찾았다. /연합뉴스

반계임 앞서고도 2위?

KIA, 바뀐 승률제 때문 삼성에 승률 0.002 뒤져

‘승차 -0.5의 2위?’ KIA는 10일 잠실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결승타와 100홀런을 때린 김상현의 활약으로 주말 3연전을 워닝시리즈로 장식했다. 승차없이 1위를 지키고 있던 삼성이 이날 우천으로 경기를 치르지 않았던 만큼 많은 야구팬들은 KIA가 선두탈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승차 -0.5’의

2위였다. KIA가 승차에서 앞서고도 1위에 오르지 못한 것은 새로 적용된 승률제 때문이다. 프로야구 실행위원회는 올 시즌 지난 2년간 무승부를 패배로 규정했던 제도를 폐지하고, 승수를 승수와 패수의 합으로 나누는 일본식 승률제로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방식에 따라 10일 까지 47승

32패를 기록한 KIA의 승률은 ‘47(승)/79(승과 패의 합)=0.595’가 된다. 10일까지 74경기를 치른 삼성의 전적은 43승29패2무. 두 차례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43에 74가 아닌 72(43승+29패)를 나눠야 한다. 삼성의 승률은 ‘43/72=0.597’이 된다. 이 계산에 따라 0.002차로 삼성이 1위를 지키게 된 것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무승부=패’인 지난해 승률제를 적용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삼성의 승률은 43(승) 나누기 74(경기수)가 되기 때문에 0.581, KIA가 1위다. 경기수에 따라 승률의 변동폭도 달라지지만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한 팀과 최소 경기를 치른 팀의 차이도 많다. KIA는 올 시즌 비를 피해 가면서 8개 구단 중 가장 많은 79경기를 치렀다. 71경기를 마친 SK와 두산에 비해 8경기나 더 소화했다. 새로 적용된 승률제와 날씨에 따른 경기수 편차에 따른 승률을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길이 분주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안치홍·이범호·김선빈·이용규 ‘올스타’

롯데 이대호 역대 최다 득표 ... KIA 이범호 3위

롯데의 ‘거포’ 이대호가 역대 최다 득표로 프로야구 올스타에 선정됐다. KIA에서는 안치홍·이범호·김선빈·이용규가 별종의 별이 됐다. 이스턴리그 1루수 부문의 이대호는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발표한 2011 올스타 베스트 10 인기투표 최종 집계 결과 83만 7088표를 얻어 지난해 홍성흔(롯데)이 기록한 81만 8269표를 넘어 역대 최다 득표로 올스타가 됐다. 웨스턴리그 포수 부문의 LG 조인

성은 78만 9912표로 그 뒤를 따랐다. 웨스턴리그 3루수 부문의 이범호는 74만9348표로 3위를 차지, KIA 유니폼을 입고 올스타전에 초대를 받았다. 고졸 신인 첫 미스터 올스타 주인공인 KIA 안치홍(2루수)은 3년 연속 베스트 10의 영예를 누렸고, 무서운 집주를 펼치고 있는 KIA의 톱타자 외야수 이용규도 미스터 올스타에 도전한다. 지난해 감독 추천으로 올스타 무대를 밟았던 KIA 유격수 김선빈은 처우

■ 2011 올스타전 베스트 10

웨스턴리그	이스턴리그
류현진(한화) 투수	차우찬(삼성)
조인성(LG) 포수	강민호(롯데)
장성호(한화) 1루수	이대호(롯데)
안치홍(KIA) 2루수	정근우(SK)
이범호(KIA) 3루수	박석민(삼성)
김선빈(KIA) 유격수	박상수(삼성)
이용규(KIA) 외야수	최형우(이상 삼성)
이범규(LG) 이진영(LG)	전준우(롯데)
박용택(LG) 지명	홍성흔(롯데)

한·박석민·김상수·최형우(이상 삼성), 정근우(SK), 전준우(롯데)와 함께 처음으로 베스트 10에 선정됐지만 부상으로 참가가 어려울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올스타 신인 삼성 차우찬은 2년 연속 베스트 10에 선정된 류현진(한화)과 선발 맞대결을 벌인다. 구단별로는 삼성에서 가장 많은 5명이 올스타에 이름을 올렸고, KIA·LG·롯데가 4명이다. 한화가 2명, SK가 1명이고 두산과 넥센은 올스타를 배출하지 못했다. 2011 올스타는 팬 투표로 선정된 베스트10 외에 웨스턴리그 사령탑인 KIA 조범현 감독과 이스턴리그를 이끄는 SK 김성근 감독의 추천 선수(각 12명)로 구성된다. 경기는 23일 잠실 구장에서 열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축구 승강제 도입

승부조작 구단 리그 강등·AFC 챔스 출전권 박탈

2013년부터 프로축구에 승강제가 도입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1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승부조작 예방을 위한 후속 대책 및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연맹은 프로축구의 체질 개선을 위

해 ▲2013년 승강제 시행 ▲K리그 대회 방식 전면 개선 ▲신인선수 선발 제도 조정 ▲선수 복지제도 도입 등 처우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13년 승강제가 시행돼 K리그가 1·2부제로 나뉘진다. 2012

년 정규리그 성적이 승강제에 반영되고 별도 자격 기준안이 마련된다. 내년부터는 자유계약과 드래프트의 장점을 보완한 신인선수 선발 제도가 시행된다. K리그가 주관하는 리그컵과 정규리그 등 대회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연맹은 승부조작이 발생하는 구단에 대해 리그 강등, 승점 감점,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박탈 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아름다운 결혼의 시작 신양파크 호텔과 함께

Cool Wedding Event

웨/딩/특/전
 허니문룸 1박
 조식2인(웨딩 전일 또는 당일)
 온돌 폐백식 / 폐백용품제공
 아이스크빙 제공

웨딩 축하 케이크 제공
 꽃길 서비스
 특수 연출 서비스
 신양 허니문 카드 증정

Special Rate

뷔 페 ₩29,000 / ₩33,000
양 식 ₩33,000 (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35,000 (에피타이저+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 눈부심과 설렘으로 다가오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기간 | 2011년 7월 1일 ~ 9월 30일 예약문의 : Tel. 062)228-4711~2 / 062)221-4101~3